

2019 YWCA 신년예배

주를 신뢰함으로 함께 시작하는 새 출발

일시 2019년 1월 3일(목) 오전 10:30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설교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소리मुख 선배들의 목소리 (마태복음 6:34)
 목적문과 나
회원기도
노래 배우기 YWCA Dream!

※ 문의 (02)774-9702 법인사무국 ※ 예배 후 점심식사가 준비됩니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재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특집

2018 한국YWCA 10대뉴스

기획 '여성이 안전한 나라'

'미투운동'은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성폭력 해결 없이 한국교회 희망도 없다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강원여성, 평화를 잇다
 제주YWCA 청소년 랩페스티벌

인터뷰

청년토크 '주인공'들을 만나다



바른삶 실천대회와 의식개혁운동



1990년 5월 제1차 바른삶 실천대회



1990년 11월 바람직한 결혼식과 결혼예복 발표회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로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YWCA는 1990년대부터 이기주의, 과소비로 황폐한 사회를 회복하고 건강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바른삶 실천운동'을 펼쳤다. 과다한 혼수와 허례허식을 없애고, 성평등한 결혼 예식을 제안한 '바람직한 결혼식과 예복발표회'를 열어 결혼문화캠페인을 시작하자 전국 YWCA로 확산됐다.

YWCA는 미래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했다. YWCA와 교회여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1990년 5월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제1차 바른 삶 실천대회를 열고 실천지침을 선포했다. 밝은 가정을 가꾸며 절제하기, 퇴향락에서 벗어날 것 등을 주문했다. 워크숍과 캠페인 등을 통해 과소비 안하기, 우리 농산물 먹기, 퇴폐 비디오 추방하기, 마약추방운동 등을 펼쳤다. 가정이 바르게 서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공평한 가사분담, 가족 대화 가지기, 아들딸 역할을 구별하지 않기 등의 지침도 마련했다.

바른삶 실천운동은 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이어져 사회 각층에 영향을 미쳤다.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매관매직을 비롯한 투기와 과소비 등이 여전한 사회에 신선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1997년 제2차 실천대회에는 전국에서 회원 1만여명이 참석할 정도였다. 회원YWCA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 줄이기, 갯벌 살리기, 비닐봉지·전기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였다. 종파를 초월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YWCA 바른삶 실천운동은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생명운동과 아나바다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탈핵운동 등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2018.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12월 13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2018 성탄예배 참석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2019년 1-2월 주요일정

1월 8~10일

Y-틴 전국협의회

1월 11~14일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2월 11일~12일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2월 13일

YWCA 정기총회

제54권 제10호 통권 556호

2018년 12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지역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은영
- 05 **말씀묵상** 사랑이 정의다 | 이홍정
- 06 **2018 성탄예배** 모든 것을 화해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 편집실

특집 '2018 한국YWCA'

- 08 ① 사진으로 보는 2018 | 편집실
- 12 ② 2018 한국YWCA 10대뉴스 | 편집실

기획 '여성이 안전한 나라'

- 18 ① '미투운동'은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 이하나
- 20 ② 성폭력 해결 없이 한국교회 희망도 없다 | 김민주

초점 '청소년과 성평등'

- 22 ① YWCA 청소년 성평등 인식조사 '성차별 경험 86.9%' | 천유란
- 24 ② 현장에서 겪은 성평등 교육 | 노하연

- 26 **인터뷰** 청년토크 '주인공'들을 만나다 | 김민주
- 28 **이달의 현장①** 세종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 손지수
- 30 **이달의 현장②** 성남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 오복순
- 32 **이달의 현장③** 씽크잡스 드림쉽콘서트 '꿈을 찾아 떠나볼까' | 서형원
- 34 **이달의 현장④** 씽크머니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사 경진대회 | 홍수진
- 36 **이달의 현장⑤** YWCA 은학의집 선진노인복지 해외연수 | 윤수정
- 38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①** YWCA강원협의회 평화기행 | 우미강
- 4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②** 제주YWCA 청소년 랩페스티벌 | 안선영 박솔기
- 42 **연합회 소식**
- 44 **회원YWCA 소식**
- 53 **2018 월간 목차 색인**

YWCA 지역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야카데미위원장·돌봄과살림위원장

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요즘말로 핫한 트렌드에 속한다. Buy Local, Stay Local, Support Local은 지역운동을 대표하는 슬로건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자원과 정책을 지지하자는 내용이다.

경제분석에 따르면 지역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65%가 지역 내에 재투자되는데 비해 대기업의 브랜드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45%만 지역에 남는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운동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러한 지역운동의 양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주로 거래하는 생협운동과 지역 내 환경운동, 지역의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역운동은 생활밀착형 운동이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상생활에 기반하여 지역 내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지역운동은 매우 여성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의 생활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은 생활기반에 대한 관심과 뿌리가 더 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과 여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YWCA는 생활에 기반한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운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이슈를 운동화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YWCA가 벌이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생협운동), EM(친환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지역환경운동, 지역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운동과 직업훈련 사업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이슈와 문제를 여성의 힘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지역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며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활발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하겠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춘 사회적 기업이나 돌봄서비스 사업 역시 지역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성은 YWCA 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Think local’(지역을 생각하라)이라는 최근 트렌드처럼 지역의 회원과 여성들의 요구에 기초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참여하며 이를 지역의 회원과 여성들에 의해 평가받고 개선하는 일이 앞으로도 YWCA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랑이 정의다



이흥정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독점과 사유화를 패턴으로 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결과,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여지없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환되어야 할 에너지가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고 사유화하여 한순간은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순환이 차단되어 위기를 맞게 되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독점과 사유화라는 불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상호 의존성과 자기비움에 기초한 순환이 정의입니다. 그 순환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70년 세월을 적대적 공생관계로 살아온 남북의 분단과 냉전의 동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며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고, 율법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와 대화화, 타자화, 이방인화 하는 모든 담을 부수고 소통하게 하고, 순환을 일으킨 사랑의 힘이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사랑은 단순한 이웃 사랑이 아닌, 원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죄에 빠진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화해의 사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

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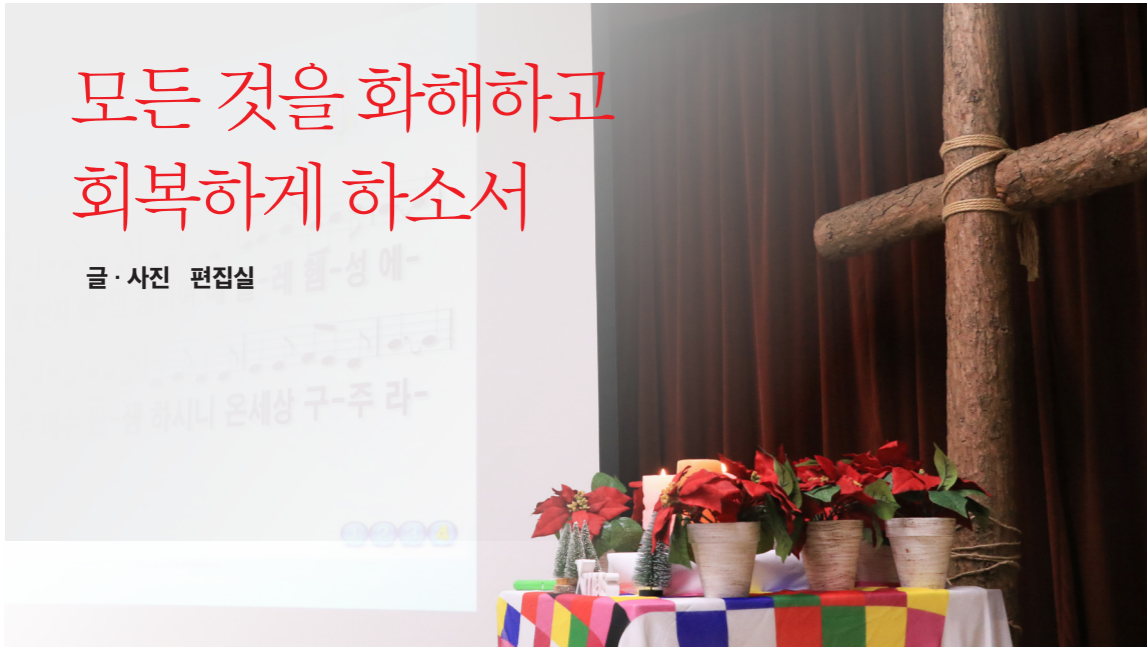
하늘과 땅의 장벽,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억눌린, 포로된 자들을 해방한 역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작은 자들의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분단과 냉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안에 구현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것. 그리하여 정의와 평화가 임할 때까지, 만물의 생명이 풍성하게 순환하는 정의로운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적대적 공생관계를 정당화 하고 재생산하는 옛 율법과 조문을 과감하게 청산해내고 사랑이라는 계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율법과 조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탄의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낮고 작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100주년을 향해서는 YWCA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본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대를 사랑하고 새 계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화해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글·사진 편집실



화해, 회복, 사랑

2018년 한해를 감사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복하기 위한 성탄예배가 12월 13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오래된 새길,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한영수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촛불점화로 시작됐다. 서울YWCA 회장인 조준남 북부지역위원장이 나눠진 마음을 화해하게 해달라는 ‘화해의 초’를, 안양YWCA 회장인 정성옥 경기지역위원장이 상처난 곳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회복의 초’를, 대전YWCA 회장인 김정민 북부지역위원장이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는 ‘사랑의 초’를 각각 밝혔다.

연합회 실행위원인 장미란 평화·통일위원장이 대표기도를 했다. 장위원장은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봄바람이 스쳐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한반도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이뤄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10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YWCA가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구상하는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실 것”을 기도했다.

광주YWCA 회장인 민혜원 서부지역위원장이 “이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봉독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가 본문에 따라 ‘사랑이 정의다’를 주제로 설교했다.


그리스도의 과제를 생각하자

이목사는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언급한 뒤 “70년 세월을 적대적 공생관계로 살아온 남북 분단과 냉전의 동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서 “하늘과 땅의 장벽,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넘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눌린 포로된 자들을 해방한 역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작은 자들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분단과 냉전의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남북의 공생관계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것, 정의로운 평화세상

을 만들어가는 것, 사랑이라는 계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율법과 조문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북한YWCA 재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헌금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인 조남희·박유진 국민대 학생의 북한노래 ‘임진강’ 공연, 화해와 회복을 위한 영상묵상에 이어 찬양과 축도로 마무리됐다.

다음으로 이종임 연합회 제2부회장의 사회로 사경과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다. 한영수 회장이 성탄 축하인사를 전했고, 백혜진 실행위원이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성탄의 시 ‘12월의 단상’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특별히 김경희 실행위원과 북한이탈주민으로 올해 연합회 실무활동가로 입사한 장수빈 간사가 성탄을 맞는 감동의 인사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홍정 목사가 '사랑이 정의다'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



'임진강'을 부른 북한이탈주민 조남희·박유진 학생



성탄예배 참석자들이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부르고 있다.

12월의 단상(斷想)

김재화

방금 지나간 달도 벌써 있었는데
11월 산에 뜰에 가을 색색 수놓은
단풍 옷 걸게 널리 널리 입었을 때

이 모습 소풍삼은 인파들의 생각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일까, 아니
어떤 기억으로 간직이나 하고 있을까

각기 고유한 생명의 색깔은
더 바랄 것 없는 완숙의 성취로 빛났으니
큰 나무 작은 나무 무슨 키를 쟁겼는가
그들은 재생(再生)의 기약을 믿기에 욕심없이 아름답다

이제 12월, 어찌 한해 저문다 후회하라
가을 풍경은 이미 사라져 첫눈도 내렸으니
새해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잊어버릴 것인가

지난 기억은 긴 역사의 자취와 흡사하여
홍망성쇠의 가닥을 땅각의 늪 속에 잠재우니
눈뜨게 하소서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해마다 알려진 자연 속의 은총
불변의 진리를-



'여성과 평화' 2018년을 돌아보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8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YWCA를 빛낸 사람들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들여다본다.



- 1 3·8 여성의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 2 YWCA 설립자와 창립정신을 형상화한 부조 앞에 장미꽃을 놓으며 미투운동을 지지했다.
- 3 2월 7일 '2018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4 3월 20일 제2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서 핵폐기물통을 멘 방진복 차림으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 5 5월 16일 경기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에서 참가자가 발표하고 있다.
- 6 7월 17일 경기지역 회원대회 퍼포먼스
- 7 8월 29일 중부지역 회원대회 결의문 낭독
- 8 8월 30일 북부지역 회원대회 카드섹션 퍼포먼스
- 9 9월 5일 동부지역 회원대회 난타공연
- 10 10월 23일 서부지역 회원대회 회원한마당 축제





12 8월 7일 Y-전국화원대회 참가자들이 몸으로 YWCA를 만들고 있다. 13 8월 23일 대학 청년Y CPR캠프에 참가한 청년들 14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한 청년들이 3월 14일 유엔을 방문했다. 15 'YWCA 청년기자단 4기' 10월 정기모임 16 5월 26일 국제여성평화걷기 어린이 참가자들이 통일대교를 걷고 있다. 17 10월 2일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참가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18 이진용 연합회 위원과 조종남 서울YWCA 회장(왼쪽부터)이 6월 14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지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19 3월 27일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개소식



20 10월 1일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참가자들(사진=여성신문) 21 청주 YWCA 청년활동가가 5월 24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페이메투(PayMeTo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2 10월 16일 YWCA 'YANA콘서트'에서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씨와 사회자 주철환 아주대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3 4월 17일 내외빈과 함께 한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들 24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이 11월 22일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을 받고 있다.



성평등, 평화, 탈핵을 향해 나아가다

2018년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용기있는 여성들의 외침 '미투운동(MeToo 성폭력 피해고발)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 1922년 창립부터 성차별에 맞선 YWCA는 미투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위드유(WithYou)로 응답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도 계속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탈핵 에너지전환, 성평등 정책을 의제로 개발해 시민캠페인, 정책제안, 유권자 선언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도 펼쳤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힘쓴 한해를 10대 뉴스로 되짚어본다.

1 '미투' 응답으로 성평등운동 본격화



창립 초기부터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 여권향상에 힘쓴 YWCA는 미투운동에 적극 응답했다.

2월 정기총회에서 52개 회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는 미투운동 지지를 결의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8 여성의 날'에는 우리 사회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외치며 서울 명동거리를 행진했다. 회원YWCA도 전국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벌였다.

2014년부터 여성이 받는 임금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YWCA는 올해도 '임금차별은 불법이다'이란 슬로건 아래 27개 회원YWCA를 중심으로 '페이미투(PayMe-Too)' 운동을 펼쳤다.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성평등 헌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YWCA는 여성들과 힘을 합쳐 남녀동

수 공천과 성차별 해소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며 성명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시위행진, 서명운동, 국회 면담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실현의 요구를 이어가고 YWCA 성평등운동의 목표를 공유하고자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1차 교육에서는 5개 지역위원회별로, 2차 교육에서는 두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을 짚어보고 기독교 여성주의와 YWCA 성평등운동 과제를 살펴봤다.

그동안 감춰졌던 교회 성폭력 문제가 미투운동과 함께 드러나면서 기독교여성단체와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를 열었고, 서울YWCA는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2 지역여성운동 화두를 던지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지역 분권화와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전국 52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온 YWCA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2018-2019년 정책의 키워드를 '젠더'와 '지역'으로 정하고, 모든 활동에 젠더 관점과 지역성을 강화한 지역여성운동을 펼칠 것을 선포했다.

YWCA는 현존하는 여성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 조직을 두고 지역여

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YWCA 지역여성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부터 지금까지 지역여성운동 흐름과 성격을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를 찾는 '지역여성운동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YWCA는 어떻게 '지역'과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지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중심의 운동성과 여성주체로서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YWCA 재조직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3 여성, 희망이 되다 '지역 회원대회'



YWCA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위해 힘쓸 것인지 비전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인 지역별 회원대회가 경기를 시작으로 중부,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 열렸다.

회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우는 지역별 회원대회는 4년마다 개최된다. '미투운동'이라는 큰 번곡점을 맞은 올해는 5개 지역 모두 성평등을 주제로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결의했다. 주제강연을 통해 지역여성운동단체로서 YWCA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기자랑, 체육대회, 포크댄스, 초대가수 노래와 춤 등 다채로운 한마당이 지역별로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카드섹션, 불평등·차별문화 철폐 현수막 찢기 등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로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했다. YWCA가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 여성들과 함께 희망을 잇고 키워가는 지역여성운동의 구심이 되길 다짐했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진은 계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YWCA 행진은 올해도 계속됐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며 국제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2015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중단하면서 시작된 국제여성평화걷기는 2018년 4회를 맞았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5월 23일 국제여성평화걷기 사전행사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여성 평화 촛불행진'을 벌이고 헤어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성사를 촉구하며 평화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13개국 여성평화운동가들은 5월 24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여성참여와 역할을 토론하는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도 열었다. 5월 26일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과 시민 1천여명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국제여성평화걷기를 진행하며 통일대교를 걸었다.

2017년 제주 한라산에서 첫 발을 내딛은 여성평화순례도 이어졌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길위의 평화포럼'을 다섯 차례 열고 두 번째 여성평화순례를 준비해온 YWCA는 9월 30일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미국·중국 재외동포,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와 지리산 일대에서 '2018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을 진행했다. 군사행동 반대, 여성참여 보장, 민간교류협력 상시협의 기구 마련 등 2018 여성평화선언문을 채택한 YWCA는 무르익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 100주년이 되는 2022년 한민족 여성이 함께 손잡고 백두산에 오를 것을 다짐했다.

5 탈핵을 넘어 '에너지전환'을 말하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발표했지만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자 YWCA는 더 많은 시민들이 탈핵의 필요성을 알도록 시민캠페인을 지속했다.

특히 올해를 '에너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에너지 자립운동을 펼쳤다.

3월 20일 제200차를 맞은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기념해 서울 명동거리에서 행진과 문화공연을 열었다.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에 관심을 가진 해외에서의 연대도 이어졌다.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BUND·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 리차드 메르그너 부회장의 강연도 펼쳐졌다. 전국 34개 회원YWCA의 탈핵캠페인도 동시다발로 행됐다. 에너지전환의 인식을 확산하고 회원YWCA 운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중심의 에너지전환 교육교재도 펴낼 예정이다.

6 미래세대 이끌 청소년·청년 리더십 키우다



YWCA는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인 청년 리더십을 양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 여성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한국YWCA 청년대표단을 파견하고, 일본YWCA 평화교육 프로그램인 히로시마 평화순례에는 Y-틴이 해마다 참석해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한일YWCA청소년협의회에는 대학·청년Y와 Y-틴이 참석해 청년의 힘든 삶을 논의했다. 대학·청년담당 실무자 해외연수도 일본을 향해하는 그린보트에서 진행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청년들이 모이는 오사카YWCA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에도 청년 3명을 보내 국제경험을 쌓도록 지원했다. 대학·청년Y는 '청년을 숨쉬게 하다'를 주제로 청년CPR캠프를, Y-틴은 전국회원대회를 각각 열었다.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1922장학금, 김활란기념장학금, 손메리·손인실장학금, 고의순나눔기금장학금 등으로 후원하고 있다.

7 지방선거와 YWCA 유권자운동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YWCA 가치가 정치제도와 국민 생활에 실현되도록 유권자운동을 펼쳤다.

YWCA는 탈핵에너지전환, 성평등 분야 핵심 내용을 지방선거 정책의제로 제안했고, 회원YWCA는 지역에 맞는 정책제안서로 개발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초청하여 YWCA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협약과 토론회를 열었다. 투표를 독려하고 의제를 알리는 거리캠페인, 서명

운동 등도 벌이며 유권자 자가평가, 후보자평가도 진행했다.

대학·청년Y는 대학 내 성평등을, 대학YMCA전국연맹은 기본소득을 각각 주제로 청년유권자선언을 작성하고, 지역과 캠퍼스에서 청년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며 목소리를 냈다.

8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진로교육 확대



YWCA는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금융교육 개발에 앞장서왔다. 2006년부터는 씨티재단 후원으로 '핑크머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YWCA와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에도 힘썼다.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

아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YWCA를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주민 경제교육, 경제전문강사 연수, 교육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는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이 실제 경제생활을 체험해보는 글로벌 경제캠프 '청소년 세계지갑 여행'도 열었다.

청소년 핑크머니 상설 금융생활체험교실 '핑크핀'(Pub-FIN)을 2017년 한국YWCA회관에 1호를 연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수원YWCA에 개소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직업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교육프로그램 '핑크잡스'도 시작해 한해 활동을 정리하는 '핑크잡스 드림업콘서트'도 11월 열었다.

9 YWCA 가치를 알리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의 정신을 알리고자 힘써왔다.

제16회를 맞은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여성들의 가정문제 법률구조와 가족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온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에게 대상, 검찰 내 성추행·성폭력 실태를 고발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며 미투운동에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에게 '젊은 지도자상'을 각각 수여하며 성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청자에게 권장하고, 방송제작진을 격려하는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은 제22회를 맞아 디지털성범죄 산업의 온상인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파헤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에 대상을 수여했다. 2017년 시작해 올해 두 번째인 YANA콘서트 '동행'은 세상을 향한 YWCA의 따뜻한 시선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10 '시민안전'을 지키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문제는 공포의 불씨가 됐다.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으로 라돈침대 사태가 확산되자 YWCA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는 한국YWCA회관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어 원인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대응을 모색했다.

이후 성명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사태해결과 생활 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이 생리대, 속옷, 화장품, 정수기 필터, 베개, 온열매트, 라텍스, 목걸이, 팔찌, 욕실자재 등 생활 속 전반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YWCA는 환경·여성·소비자단체들과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해 방사능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미투운동’은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묵하지 않겠다. 여성의 힘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

YWCA 회원들이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하나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여성신문 기자

한국 사회 뒤흔든 미투운동

‘나도 말한다’는 의미를 지닌 ‘미투(#MeToo)’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미투를 외치며 침묵을 깨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하고 방조한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자 단단했던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성차별·성폭력의 구조를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는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성폭력에 대한 침묵의 금기가 깨지자 경악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미투운동은 사회 곳곳에 만연했던 성폭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력한 정치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원로 시인,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영화감독 등 권력 중심에 있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

자로 고발당했고, 수많은 미투 고발이 일터와 학교에서 터져 나왔다. 사실상 권력이 있는 모든 곳에 성폭력이 있었던 셈이다.

미투운동에 불을 붙인 인물은 서지현 검사다. 그는 1월 2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찰청 내부전산망에 공개했다. 3일 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성추행 사건 조사 요구를 묵살했으며, 자신이 오히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현직 검사조차도 성추행 피해를 본 지 8년 만에야 입을 열 수 있었다. 서 검사의 용기가 시발점이 돼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자 개인문제로 여겨지던 성폭력이 성차별 구조와 문화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구조 변화 이끄는 연대의 힘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2016년 10월 ‘#OO_성폭력’에서 처음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말하기 운동은 미투운동과 만나며 더욱 불이 붙었다. 2월 6일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암시한 ‘En선생’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수차례 거론된 고은 시인이라고 밝혔다. 최 시인은 자신이 등단할 무렵 성폭력은 일상화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문단 내 ‘침묵의 카르텔’ 깨기는 연극계로 번져갔다. 2월 14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연극연출가 이운택씨가 ‘연희단체거리’ 여성 단원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의 고발 이후 붓물 터지듯 미투가 이어졌고 이씨는 첫 미투 38일 만에 구속됐다.

3월 5일, 정치권 첫 미투가 터져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힘겹게 고발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며 인권과 페미니즘을 설파하던 안씨가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 내용은 시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겼다.

미투는 권력 뒤에 숨어 폭력을 휘두른 남성들의 민낯을 들춰냈다. 그러나 미투가 가리킨 것은 일부 남성의 뻔뻔하고 추잡한 일탈만이 아니다. 미투의 본질은 성폭력을 방조 또는 동조한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다.

시작부터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 여성들에게 가장 큰 힘은 또 다른 여성들의 연대였다. 수많은 시민들의 위드유(#WithYou)는 지지 미투를 외친 이들에겐 창이자 방패였다. “범죄 피해자분들과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서지현 검사의 말은 미투이자 위드유를 상징한다. 35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을 결성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혜화역에 모인 수만 명의 여성들은 ‘불법 촬영·편파판결’을 규탄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미투’에 응답하라

그러나 미투운동의 폭발적인 확산에 비해 증거 미흡과 관련법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무고 등으로 피해를 억고소하는 ‘저항’도 거세다.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한 판단의 문제와 새로운 미투 법안의 제정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 당사자의 사과와 지사직 사퇴가 있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지위에 따른)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새로운 미투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한 문제도 크다. 미투운동이 본격화된 1월부터 법안이 속속 발의돼 국회는 관련 법안을 140여건 발의했지만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법은 9개에 그친다. 특히 강간죄 범위를 확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나 벌금 10만원의 경범죄로 다루지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법안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이슈가 터질 때만 반짝 하는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행태’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주력했던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성만 ‘피해자’로 상정하면서 다양한 피해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11월 1일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미투운동이 ‘혁명’이 되려면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투운동이 “공고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주류적인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젠더 변혁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직 변화는 더디다. 그러나 균열은 시작됐다. 미투운동은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최유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한혜영 서울YWCA 여성참여위원장, 홍보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장(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민주
청년기자단 3기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성폭력이 반복되는 교회구조

최근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다. 인천 A교회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밝힌 것. 피해자가 최소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 A교회 사건은 교회가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교회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성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서울YWCA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뉴스앤조이, 믿는페미와 함께 11월 27일(화)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드러냄, 살롬의 공동체를 꿈꾸며’를 열었다. 한혜영 서울YWCA 여성참여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홍보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와 도라희년 믿는페미 활동가, 최유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홍보연 원장은 교회 성폭력에 대해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에게 성폭력 또는 간음,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홍원장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교회 성폭력 사건은 침묵하고 드러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면서 “교회는 성폭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힘의 불균형에 대

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무엇보다 교단과 교회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도 개인의 인식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원장은 “교회에서 힘 있는 목사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피해자와 약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는 취재현장에 만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회 성폭력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 특성을 갖는 점에 주목하고, 그루밍 성폭력이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도 전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친밀한 관계형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교회에서는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해도 피해자가 이를 그루밍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폭력이 이뤄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이후 피해자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가해자는 신앙을 이용한 회유나 협박을 하며 고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가 취재한 사건에서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가 교회를 떠났거나 사과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인들이었다. 교인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목사를 면담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며 적극 대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꿈같은 이야기”라며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단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 구성원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처럼 존재하는 교회 내 성차별

크리스천 페미니스트들의 모임인 믿는 페미의 도라희

년은 교회 내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성적 대상화, 고정적 성역할, 남성중심적 사고, 여성 혐오적 성서 해석 등 교회 내에서 공기처럼 일상적으로,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설명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몸·외모와 옷차림을 검열당하고, 성적 농담의 객체가 되기도 하며 ‘주방봉사’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장로와 목사가 여자인 경우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을 붙여 얘기하며, 여전히 ‘해산의 고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성서해석이 존재한다.

그는 성차별을 해결하고 성폭력에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던지는 원점화를 비롯해 젠더 규범에 대해 자기에게 질문하기, 타자에게 말걸기, 경청하기,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차별적·혐오적 발언 끊어주기 방안을 제시했다.

최유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후처리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말했다. 교회 성폭력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임을 강조한 그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정기시행, 성폭력 규정 명문화와 처벌의 실효성 강화, 젠더 감수성 키우기를 제안했다.

이어 “공동체 내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성폭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살피는 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 내 성차별적 구조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 성폭력 문제를 말하고자 하면 “교회 치부를 드러내는 게 더 창피하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무서운 여자들이 달려들면 교회에 전도가 안된다”는 반응이 돌아오는 게 다반사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



라라스쿨 강사가 지난 8월 31일(금) 서울 양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

천유란

한국YWCA연합회 청소년담당 간사

학교는 안전한가

2018년 ‘미투운동’이 한국사회를 강타하면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불합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부당한 물리적, 언어적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스쿨미투’는 큰 충격을 주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젊은 청년여성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한국YWCA는 가장 먼저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며 미투운동 지지에 앞장섰다. 특히 2016년부터 성평등운동을 2대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전국에서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비롯해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 경제역량 강화, 여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회원 Y-틴, 청년회원 대학·청년Y가 미래세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YWCA는 그동안 숨겨졌던 학교 성폭력의 실상이 ‘스쿨미투’로 고발되는 현실을 보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인식, 성희롱·성폭력 실태, 성인지·성평등 교육이수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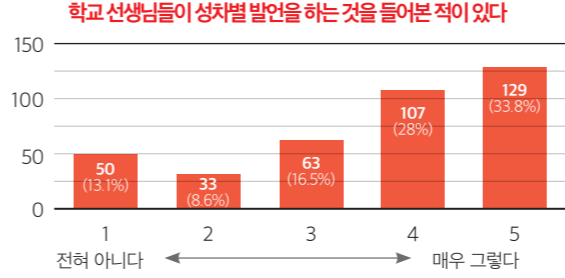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는 11월 14일(수)부터 12월 3일(월)까지 20일 동안 382명의 청소년회원 Y-틴을 대상으로 28개 항목에 걸쳐 ‘YWCA 청소년 성평등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얼굴, 몸매, 옷차림, 수업, 학

YWCA 청소년 성평등 인식조사 응답자

구분	응답자 (382명)
성별	여성 284명 (74.4%)
	남성 98명 (25.6%)
YWCA 활동기간	없음 30명 (7.9%)
	1년 미만 201명 (52.6%)
	1년~2년 미만 123명 (32.2%)
	2년~3년 미만 12명 (3.1%)
	3년 이상 16명 (4.2%)
성평등 교육 이수여부	없다 62명 (16.2%)
	있다 320명 (83.8%)

교생활, 성범죄, 사회적 성역할 등에 관한 성인지를 비롯해 성평등 교육여부와 성인지 기여도, YWCA 활동기간과 성인지 기여도를 인식측면뿐 아니라 경험측면에서도 조사했다.

이번 조사의 설문항목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설계했다. 조사에는 전국에서 12세부터 20세까지 38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16~19세 청소년의 비율이 93.7%로 가장 높았다. 여자 청소년은 284명(74.4%), 남자 청소년은 98명(25.6%)이고,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이 296명(77.5%)으로 가장 많았다. YWCA 활동기간은 1년 미만 201명(52.6%), 1년 이상~2년 미만 123명(32.2%)를 차지했다.



건강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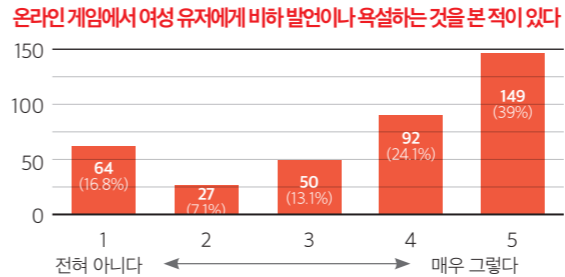
경험측면을 중심으로 성차별 경험을 물어본 항목, 즉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자 청소년은 65%, 남자 청소년은 51%가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여성 청소년의 경험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평등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성인지도가 높을까. 성인조 문항으로 살펴본 결과, 성평등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성인지도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3% 정도 낮게 나왔다.

특히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현재 성평등 교육의 효과가 저조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과 기존 교육내용의 총체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은 2012년부터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이다. 성역할 관념이 고정되는 청소년 시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교사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여성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얼마나 받는다고 느낄까. 청소년회원 Y-틴 382명 중 332명(86.9%)이 학교 선생님의 성차별 발언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급식을 먹을 때 남학생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다’라는 질문에 215명(56.3%)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체벌도 성별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고 301명(78.8%)이 응답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여성은 안전하지 않았다. 여성 유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물론 욕설, 성희롱에 여성혐오 발언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겪는 피해도 심각했다.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비하 발언이나 욕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291명(76.2%)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추가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게이머가 여성으로 밝혀지는 경우 팀에서 제외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팅 기능으로 협박도 당했다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에게 게임을 질 경우 보복성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험측면의 성차별 경험

- 체육시간에 여자가 축구하는 것은 흔치 않다.
- 학교 선생님들이 성차별 발언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 학생들 사이에서 성에 관련된 소문이 나면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더 피해를 입는다.
- 급식을 먹을 때 남학생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다.
-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비하 발언이나 욕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가정에서 남성이 요리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물다.
- 현재 대부분 모임의 대표는 주로 남성이다.

성인지도 문항

여학교 명칭, 여학생 교복 디자인, 짧은 옷차림, 남성의 화장과 액세서리 여부, 여성의 화장 여부, 여성의 몸매, 남성의 체격과 힘, 남성의 긴 머리, 여성의 키, 성별간 성범죄 발생, 동의된 성행위 영상 유포, 연인 간의 동의 없는 스킨십, 가까운 사이의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 옷차림,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성관계, 남성 직업 고정관념, 여성 직업 고정관념, 생리휴가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임금,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을 위한 성교육, 성평등 교육 기관인 라라스쿨 노하연 대표가 올해 8월 7일(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Y-틴 전국회원대 회 참가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노하연
라라스쿨 대표

‘미투시대’ 남자 청소년의 현실

YWCA 청소년 성평등 인식조사 결과는 성평등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과를 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성평등 인식 점수가 더 높다. 그 중에서 여성의 외모, 성폭력 피해 책임, 성희롱 관련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청소년 성평등 교육현장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다.

여자 청소년을 향한 외모에 대한 압박, SNS와 미디어로 경험하는 성적 대상화, 성폭력 피해의 일상경험 등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차별은 이미 자신의 이야기다. 이런 정서적 공감은 연대와 행동으로 이어져 10대 여자 청소년의 탈코르셋운동, 스쿨미투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성평등 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감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YWCA 인식조사에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평등 교육 경험이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교육 경험이 있는 남자 청소년의 성인지 점수가 더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먼저 지금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평등 교육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면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백래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만난 남자 청소년들은 성평등 교육에 반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평등 교육이 남자 청소년의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대감만 강화하는 매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공감하고, 남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성평등 인식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야 할 때다.

교육현장에서 남자 청소년이 성평등을 향해 표현하는 불편감 혹은 적대감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모든 남자

청소년이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는 성평등 교육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반감을 표현하곤 한다. 침묵, 무시, 혐오 발언, 분노 표출, 끝없이 질문하기, 여자 청소년에 대한 공격 등이 있다.

최근 눈에 띄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역차별’이라 말하는 이슈에 대한 질문을 나열하듯 끝없이 말하는 형태다. 교육자의 대답을 듣기 위한 목적보다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반감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는가’, ‘왜 남자가 돈을 내야 하는가, 더치페이해 하지’,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이 가족부는 왜 없는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휴게실, 여성 편의시설은 있는데 남성전용은 왜 없는가’, ‘생리(월경)휴가, 생리공결제는 역차별 아닌가’ 등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

학교에서의 성인지 교육 중요하다

반감을 품은 질문은 학급교육이든 대규모교육이든 어디서든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남자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공감능력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일까? 질문을 바꾸면 다른 접근이 가능해진다. ‘남자 청소년이 경험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가?

교육현장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표출하는 적대감의 어떤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여겨진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정체성은 구조적 특권을 지녔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지위를 고려할 때 그들이 표면적으로 특권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가부장제에서 남성에게 강요되는 요구와 억압만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 10대에게 남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시적으로 아버지 세대만큼 남자로서 누리는 특혜 없이 가부장제에서 남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의무는 아직도 무겁다고 생각한다. YWCA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내용이다.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월급

을 더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여자 청소년은 85.9%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남자 청소년은 58.6%만 ‘아니다’고 대답했다.

외향적 남성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에서도 남자 청소년은 더 낮은 성인지 점수를 보였다. 여전히 남성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남자다움에 대한 젠더 박스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 역시 가부장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자 청소년이 경험한 박탈감과 부당함, 분노와 억울함이 혼재돼 성평등 교육 현장에서 ‘날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2017년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해 민관협치로 ‘성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성평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민간단체, 마을공동체와 함께 성평등 교육내용을 만들어 서울시내 31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5회까지 성평등 수업을 진행했다.

‘성평등’은 2018년 마을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청소년·인권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어졌으나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정착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8년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78.4%, 남자 청소년의 38.7%가 학교에서도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미 청소년은 성평등 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평등 교육효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한 억압과 차별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부장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가부장제와 얽힌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성별에 상관없이 공감과 이해의 폭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체계적이고 대상의 특성과 시의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이어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육)를 통해 비판적 안목이 함께 길러져야 한다. 



12월 1일(토) 한국YWCA회관 Y-space에서 청년토크 '주인공'인 인싸, 와이돌, 노잼을 만났다.

당근, 배추, 김밥...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청년토크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별명이다. 청년토크는 2017년 한국YWCA가 95주년을 맞아 청년성 강화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월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보자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별명을 사용했다. 그 이름은 웃기면서도 가벼웠지만, 청년토크가 다루는 주제는 성차별, 성폭력, 난민, 성소수자 등 묵직한 주제다. 출연자 중 3명을 직접 만났다. 가감 없는 그들의 속내를 듣기 위해 인터뷰 역시 '복면'으로 진행됐다.

진정한 Y(Young)의 목소리

YWCA의 'Y'는 'Young'을 의미하지만 96년이란 세월 동안 활동가를 비롯한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점점 올라갔고,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청년토크는 YWCA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작됐다. 다양한 별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계기도 여기에 있다.

인싸는 "YWCA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장이 드물었고, 사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선뜻 나선 데

는 익명으로 진행된 형식이 한몫 했다. 와이돌은 "익명이라는 장치 안에서 말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쏟아낼 수 있어서 속시원했다"고 말했다.

청년토크를 하며 좋았던 점을 묻자 기회와 생각의 나눔, YWCA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꼽았다. 노잼은 "사회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와이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YWCA 정체성

이나 청년운동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없이 바로 활동해왔는데 청년토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YWCA 운동을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YWCA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면서 YWCA 운동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였을까. 청년들은 다양성 부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와이돌은 "아무래도 YWCA가 지향하는 입장을 말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해 점점 참여를 안하더라"고 토로했다. "행여 빗나가는 말일지라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싸는 월간의 한정된 지면분량을 꼽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두 페이지로는 역부족이었다. 주제들이 가볍지 않아서 네 페이지로 늘리면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로 채웠다

성차별, 열정페이와 청년 노동권, 수도권 쏠림 현상, 일상 속 성폭력과 미투, 청년 기본소득, 난민, 성소수자 등 일곱 가지 주제를 다뤘던 청년토크. 가장 인상 깊은 이슈를 물었다. 인싸는 청년들의 미투 사연을 실은 2018년 3월호를 꼽으며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도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노잼은 "성차별이 인상 깊게 남았다. 처음으로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위험과 불안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쉬움이 남은 주제를 묻자 와이돌과 인싸는 '성소수자' 주제를 꼽았다. 와이돌은 "사실 청년토크를 통해 기성세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며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 삶에서切要한 이슈임에도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싸는 '난민' 주제가 아쉬웠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혐오문제가 영진 이슈라서 기회가 된다면 공부한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도 다양했다. 노잼은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며 "청년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루면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와이돌은 '교회 내 청년이탈'을 꼽으며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를 떠난 친구, 다닌 적 없는 친구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실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청년토크

짧다면 짧을 1년 남짓 진행된 청년토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참가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노잼에게 향했다. 노잼은 웃으며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싸는 "노잼은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부정적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말을 상당히 했는데 최근엔 좋은 의견을 내놓아 감탄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청년토크는 어떤 의미였을까. 와이돌은 "청년토크는 놀이터다,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마치 노는 것처럼 즐거웠다"고 말했다. 인싸는 "산소호흡기"라는 독특한 답변을 내놨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는 "주변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인권감수성이 높은 말을 듣게 되어 숨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잼은 이중적인 답변을 내놨다. 바로 "유토피아"라는 것.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과 장소도 없다. 청년토크를 통해서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며 웃었다.

내내 화기애애했던 인터뷰 분위기처럼 청년토크는 이들에게 '행복한 자유시간'이었을 듯하다. 모든 질문에 주저않고 '직설(直說)'하는 이들에게 청년의 당당함과 힘을 느꼈다면 과장일까. 이런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우리 사회가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할 날을 꿈꾼다. 



농촌과 여성을 위해 힘쓰다

1970년대 조치원YWCA 청년사론클럽, 숙녀클럽, 직업여성클럽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손지수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
대구YWCA 대학청년Y 회장

1948년 조치원YWCA로 창립된 세종YWCA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11월 20일(화)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기념음악회에는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숙희 명예연합위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최고진 세종시 교육감 등 지역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국에서 모인 YWCA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농촌과 여성을 위해 힘쓰다

가난과 혼란으로 얼룩진 흑암의 땅에 한줄기 빛이 된 여인들의 손길이 있었다. 나눔과 치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모인 여성들은 조치원YWCA를 세웠다. 특히 1985년 독일 중앙개발원조처(EZE)에서 30만 마르크를 지원받아 3년 동안 펼친 농촌영양특별사업은 세종YWCA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이루는 디딤돌이 됐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방앗간을 짓고 농민에게 힘을 주려 애썼고, 정미소를 세워 하루에 두 번 운영되는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축첩제와 자녀 양육, 가사노동과 농사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축첩폐지운

동과 농촌 시범탁아소 운영도 했다.

청소년을 위한 배움의 길도 열었다. 1955년 조치원여고에 청소년조직인 Y-틴 클럽을 결성했고 중학 진학을 못한 청소년을 위해 영수학관을 운영했다. 여성들의 인권과 직업교육을 통한 당당한 사회인 양성에도 힘썼다. 조치원 YWCA는 1960~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가족 생계를 위해 가발, 의류 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근로 청소년을 위한 등불야간학교도 설립했다. 현재 등불야간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영어 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1950년대엔 문맹퇴치운동, 고등양재학원 설립으로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사회참여 의식을 높였고, 지금의 고흥자



이기옥 세종YWCA 회장(오른쪽)이 한영수 연합회 회장에게 북한YWCA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재은행과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노인무료 경로식당 운영, 무료 직업안내소 운영, 소비자운동 등을 펼쳐 생명사랑의 길을 위해 힘썼다. 세종YWCA는 어린이Y, Y-틴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 리더십을 키우고, 올바른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

이희경 세종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70주년을 기념하는 '70인 합창공연'으로 무대의 막을 올렸다.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에 이어 세종YWCA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980년대 농촌영양특별사업을 이끈 김숙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과 세종YWCA 후원에 앞장서온 최윤목 창산업 대표, 김형진 전 한신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안팎의 격려와 축하도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한국YWCA에서 읍 단위로 처음 창립된 세종YWCA는 지역에 맞게 근로여성교육, 농촌계몽, 생활개선운동 등을 활발히 펼쳐온 역사를 이어 모범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것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세종YWCA 70년의 여정

1948~1960	숙녀클럽·직업여성클럽 조직, 고등양재학원 설립, 기숙사 신축, 훈인신고강조운동
1961~1970	극빈자구호대책 모금운동, 미용학원 개관, 종합기술학원 인가, 법률계몽 강좌, 무료탁아소 개설, 윤락여성 교육, 청년 사론클럽 조직
1971~1980	신우회 조직, 소비자보호 발기대회, 등불야간학교 설립, 연합회 영양실태조사단 파견
1981~1990	무료직업안내소 설치, 농촌영양특별사업, 농촌지도자 교육
1991~2000	레크레이션대학 설립, 어린이집 개원, 정춘대학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설치
2001~2010	북한YWCA 재건운동, 호주제폐지 운동, 다문화여성 직업교육
2011~2015	노인일자리사업, 세종YWCA로 명칭 변경
2016~	민들레살림터 개장, 탈핵·동일노동 동일임금·에너지절약 캠페인




성남고등학교 뮤지컬학과의 '레미제라블'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춘희 세종시 시장은 "세종YWCA의 선도적 역할과 열정 덕분에 지역과 가정, 사회에서 여성지위가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성숙과 여성권의 향상, 실질적 평등 문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YWCA는 그동안 헌신과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생명·평화·정의의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비전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의로운 사회, 민족통일, 차별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기옥 세종YWCA 회장이 북한YWCA 재건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원을 한영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2부 기념음악회 '스토리가 있는 콘서트'가 펼쳐졌다. 주철환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세종시 무형문화재 3호인 임영이 세종YWCA 증경회장의 <홍보가> 판소리에 이어 성남고등학교 뮤지컬학과의 <레미제라블> 공연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마지막으로 가수 린이 <My Destiny>를 부르며 등장해 <시간을 거슬러>,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등의 곡을 부르며 기념음악회를 마무리했다. 



1988년 3월 8일 성남YWCA 시범탁아소 기공식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에서 열렸다.

오복순

성남YWCA 회장

12월 18일(화) 성남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성남YWCA 교육실에서 열렸다. 성남YWCA 회장단, 이사, 위원, 회원과 실무자를 비롯해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은수미 성남시장, 김창봉 성남YMCA 이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성남YWCA가 YWCA 은학의 집에서 4년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다가 새로운 보급자리로 옮기며 맞은 30주년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다

1988년 성남 남한산성 밀자락에 여성의 권리를 세우는 일을 신앙의 소명으로 받은 기독교여성들이 모여 성남YWCA의 문을 열었다. 일하는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아동을 돌보기 위한 탁아소 설립부터 시작하며 여성들의 삶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30년이 되었다.

한국YWCA가 창립 100주년을 향하는 역사 속에서 성남YWCA는 서른이라는 젊음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오늘의 성남YWCA가 있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된다. 몇 번의 어려운 일도 있었고, 운영이 힘들 때도 수 없이 많았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해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까지 이른 것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사들이 예배 특송으로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 맺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에 가슴이 더욱 뭉클하다. 성남YWCA가 이렇게 서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 중경회장들과 이사, 위원, 그리고 빛도 이름도 없이 부르신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한 회원들, 실무자까지 사랑의 수고가 풍성했던 덕분에 오늘의 30주년을 맞이했다.

성남YWCA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역사회 요구에 응답하며 YWCA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역사의 발자취와 오늘의 발걸음은 성남YWCA가 서른을 맞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생명의 바람으로 지역여성의 필요를 채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성남YWCA의 열정은 점점 더 간절한 비전이

될 것이다.

성남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전해준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의 말씀처럼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께서 성남YWCA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품고, 희망세상을 향해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작은 불꽃으로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힘쓰고자 한다.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

12월 18일(화) 성남YWCA 교육실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비상(飛上), 희망세상을 품고 날다'를 주제로 열렸다. 지나온 시간 사랑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성남YWCA 회장단, 이사, 위원, 회원과 실무자를 비롯해 한국YWCA연합회와 지역YWCA 식구들, 은수미 성남시장, 김창봉 성남YMCA 이사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남YWCA 입구 한켠에 마련된 현수막에 '서른, 청년의 때를 지나는 성남YWCA 응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뜻을 세우고 이루어보자' 등 응원 메시지를 희망나비에 적어 붙였다.


1부 감사예배에서는 성남YWCA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전했다. 성경 창세기 26장 15-24절을 인용해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이 '우물을 팠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



1988년 1월 19일 열린 성남YWCA 창립예배

2부 기념식과 비전선포식은 성남YWCA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감사하며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윤세웅 기타리스트가 '걱정말아요, 그대'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주했고, 성남YWCA 30년 역사를 영상으로 상영했다. 성남YWCA가 그동안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며 성남지역을 향해 흘러보낸 사랑을 기억하고, 때마다 진행된 활동을 사진과 영상으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창봉 성남YMCA 이사장의 축사,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한영수 회장은 "지금까지 함께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5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해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성남YWCA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마련한 성남YWCA 보급자리에서 기념식을 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어 축하영상을 통해 마음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성남YWCA 5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성남YWCA 대표로 회우, Y-틴, 결혼이민여성, 실무활동가 4명은 "차별받지 않는 평등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사회, 모두가 행복한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겠다"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정신으로 희망의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실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30주년 생일을 기념한 케이크 커팅식도 진행됐다. 성남YWCA를 향한 회원들의 다양한 희망 메시지를 보며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성남YWCA 3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씽크잡스 드림쉽콘서트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형원

청주YWCA 일하고참여하는청년의집 회원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대표

씨티재단이 후원하고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ICT(정보통신기술)교육 프로그램 씽크잡스의 드림쉽콘서트가 11월 16일(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청년의 꿈, 기술로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전국 9개 지역(광주·논산·서울·성남·수원·여수·인천·전주·천안) 청소년을 비롯한 강사, YWCA 실무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의 꿈을 응원한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창시절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YWCA와 씨티재단은 고등학생의 진로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 '씽크잡스'를 만들었다. '씽크잡스'(Think Jobs)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9개 지역에서 만 17세부터 24세까지 200명의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분야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 전문가 멘토링, 현장체험, 취업상담, 구직지원 등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11월 16일(금) 날씨가 쌀쌀해진 늦가을 씽크잡스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드림쉽콘서트가 열렸다. YWCA 실무활동가들과 콘서트 관계자의 환영을 받으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콘서트장 한편에는 씽크잡스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경험했던 순간과 본인 소개를 포트폴리오로 담은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씽크잡스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이 좋았고, 학생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담아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콘서트는 정혜원 와이드브레인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

했다. 여군장교 출신과 스타트업 교육용 게임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정 대표는 창업을 시작한 과정을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딸을 위해 직접 교육용 게임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학생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하자 정 대표는 "면접은 일단 합격이고 언제든지 자리는 열려 있다"는 재치 있는 답변으로 학생들에게 열한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YWCA에서 꿈을 끈다

씽크잡스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학생 3명의 발표가 진행됐다.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김아영(인천중앙상업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업무환경과 활동을 보여주며 미래의 꿈과 계획도 당당하게 발표했다.

박제니(단국대학교 2학년) 학생은 꿈을 찾게 된 과정과 고민, 그리고 꿈이 정해진 뒤 자신의 모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유지은(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와 함께 브랜드유렵여행, 봉사 등 다양한 활동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발표했다. 또래의 다채로운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발표 학생들과 정혜원 대표가 함께한 토크콘서트 '씽크잡스, 그리고 드림'이 이어졌다. 꿈에 대한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한 참가자는 "학창시절부터 꿈 꾸며 노력한 결과, 아나운서가 되었지만 생각했던 모습과 실제 현실이 달라서 퇴직했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분과별 네트워킹과 멘토링도 진행됐다. 콘텐츠, 테크, 교육, 글로벌 진출의 네 가지 분과로 나뉘어 이야기를 나누고 4차산업을 배우는 자리였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모인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하며 몰입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림쉽콘서트를 위해 힘쓰고 고생




토크콘서트 '씽크잡스, 그리고 드림'에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수 백예슬(왼쪽)과 강블새가 씽크잡스 주제곡 '함께 YWCA'를 부르고 있다.

한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순간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올해 씽크잡스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학생을 수상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우수 프레젠테이션 부문에서 박제니 학생이 정의·평화·생명 리더상을, 유지은 학생이 금융인성 리더상을, 김아영 학생이 지식창조 리더상을 각각 받았다.

마지막으로 씽크잡스 참가자들이 작사에 참여한 YWCA 씽크잡스 주제곡 '함께 YWCA' 공연이 펼쳐졌다. 밴드 브리지와 가수 백예슬, 강블새가 노래를 부르며 씽크잡스 드림쉽콘서트는 끝났다. '꿈을 찾아 떠나볼까'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노래처럼 YWCA를 거쳐간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찾기를 응원한다. 

함께 YWCA

꿈을 찾아 떠나볼까
함께라서 Dreamship
YWCA 꿈을 향해 달려볼까
우리라서 Dreamship
YWCA Yeah
관찰야 모두 기다리고 있어
봐봐 널 기다리고 있잖아
두렵고 미래 걱정도 많지만
우리 함께 손잡고 가보자
우리라서 Dreamship
YWCA Yeah
관찰야 모두 기다리고 있어
봐봐 널 기다리고 있잖아
두렵고 미래 걱정도 많지만
우리 함께 손잡고 가보자
내가 만드는 미래에 멋진 꿈을 펼쳐
시작일 뿐야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사의 경진대회 수상자들과 한국YWCA연합회, 한국씨티은행,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수진

한국YWCA연합회 협력사업팀 간사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재단과 함께 후원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사의 경진대회'가 12월 5일(수)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렸다. YWCA, 한국씨티은행,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씽크머니와 씽크잡스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교육

12월 5일(수)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사의 경진대회'가 열렸다. 2018년 9월부터 52개 회원YWCA와 씽크머니 강사 200여명을 비롯한 대학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문과 포스터를 보내 금융·경제교육 강의안 공모를 받았고, 예선을 거쳐 본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한국YWCA연합회 씽크머니 함희경 자문위원장, 탈핵운동 담당 김상은 간사, Y-틴 전국협의회 전임원 정수희 학생을 비롯해 에어블랙 문헌규 대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조혜영 대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실 심재학 실장이 맡았다.

예선 심사는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방식의 적합성,

YWCA 금융·경제교육 발전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이뤄졌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른 5개 작품의 강의 시연이 펼쳐졌다. 개인과 팀별로 10분씩 이어진 열띤 발표 끝에 심사결과가 나왔다.

최우수상은 개인부문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인증강사가, 단체부문에서 '청년세대'를 주제로 발표한 대학·청년Y팀이 받았다. 정성운 강사의 경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인구가 늘면서 노인의 경제문제가 중요해지는 현실에 필요한 내용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력 있는 강의가 되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대학·청년Y팀인 손지수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과 김수진 대학·청년담당 간사는 청년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청년Y팀 손지수 청년이 강의 시연을 하고 있다.

이 겪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콘텐츠와 참여방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청년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개인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발표한 권철원 한국씨티은행 강사와 '취약계층 여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현 의정부YWCA 강사가 각각 받았다. 단체부문에서는 '경제정의의 시대'를 주제로 발표한 김정래·황수미 한양대학교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코딩을 통해 용돈기입장을 제작하고, 전자가계부를 활용한 금융·경제교육 과정을 개발해 이목을 끈 '메리킹' 강륜아 대표가 특별상을 받았다. 강륜아 대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선진국에 비해 금융·경제교육을 배울 시간이 아주 적고, 관심도 낮다"면서 "코딩과 금융·경제교육을 융합한 참여형 수업으로 만든다면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응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2018년 한해 동안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와 여성청소년 ICT 기술교육 '씽크잡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들에게 우수상도 수여했다. 씽크머니를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기여한 남양주 YWCA와 수원YWCA가 씽크머니 우수기관으로, ICT 기술교육으로 취약계층 여성청년의 취업지원에 주력한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씽크잡스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금융·경제교육 강의 시연을 평가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동안 YWCA는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13년 동안 씽크머니 금융교육을 운영해왔다. YWCA뿐 아니라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주관하는 금융교육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 삶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어르신 세대, 갓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학자금과 생활비 등 경제문제를 감당하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청년 세대, 하루하루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못해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돌봄 노동자 등 세상 곳곳에는 금융·경제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금융과 경제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알기 쉽고 효과적인 강의내용 개발과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교육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소외계층 대상의 금융·경제교육 강의안 공모전은 시작됐다. 에너지전환 시대, 성별 소득격차 해소,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YWCA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강의안도 함께 공모했다. 그러나 짧은 공모기간과 홍보부족으로 더 많은 강의안이 응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우수강사의 경진대회는 다양한 주제와 금융·경제교육을 접목한 강의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YWCA 금융·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다섯 편의 수상작은 금융·경제교육 기관과 강사들에게 공유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금융·경제교육' 개발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다음 대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혁신적인 강의안이 제안되길 기대한다. 



'사람다움'을 유지하게 돕는 노인복지

YWCA 은학의집 선진노인복지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일본 교토 동화원 앞에 모였다. 가장 오른쪽이 필자다.

윤수정

YWCA 은학의집 부장

11월 20일(화)부터 23(금)까지 일본 오사카와 교토에서 '2018년 YWCA 은학의집 선진노인복지시설 탐방을 위한 해외연수'가 열렸다. 차경애 YWCA 은학의집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3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의 선진노인복지시설의 우수한 경영 방식과 시설 등을 벤치마킹해 은학의 집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은학의집 운영법인인 한국YWCA연합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내가 오고 싶은 시설을 만들자

첫째 날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연수를 도와줄 조형범 도시샤대학교 박사를 만나 도시샤 대학으로 이동했다. 정희성 박사가 '한국의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에서도 노인인구가 늘면서 자살과 고독사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역시 노인들의 고립, 자기방임, 고독사가 중요한 과제였다. 자기방임이란 사람의 죽음과 건강,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케어 서비스 등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 쓰레기 더미에 사는 것, 동물을 협소한 공간에서 수십마리 키우는 것 등의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자기방임을 정신적 문제로 인식하고 위기 차원에

서 개입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방 차원의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정 박사는 강조했다. 자기방임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들의 관심이 절실하며 문제 행동을 초기에 개입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둘째 날에는 1921년 창립돼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동화원을 방문했다.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속 입구에 자리한 동화원은 요양원, 양로원, 데이서비스센터, 단기입소 서비스, 방문간호, 24시간 안심케어스테이션, 커뮤니티 카페,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화원 직원들은 '나라면 이 시설에 들어오고 싶을까'

'부모를 이 곳에 맡기고 싶을까'를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자력으로 하도록 지원했다.

무엇보다 시설 내에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했다.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만든 소품이나 쿠키 등을 판매해 수익을 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도 파악해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장보기, 목욕,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복지시설

셋째 날에는 윤기 공생복지재단 이사장이 1982년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동경사무소를 개설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어르신들 마음의 고향이 되고자 만든 '고향의 집 교토'를 찾았다. 그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게 느껴졌고, 한국 정서를 느끼도록 한국 옛가구와 그림을 잘 배치해놓은 구조가 눈에 띄었다.

여기에는 한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본 어르신들도 함께 지내고 있다. 한국 어르신들이 인지증(치매)에 걸려 일본어를 잊어버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을 고루 채용하고 있다. 고향의 집은 요양원, 케어하우스(자립가능한 어르신들 시설), 단기보호, 방문간호, 케어플랜센터, 재택간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방마다 주소를 부여해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어르신이 거부하면 활동참여나 케어 서비스




오사카YWCA 샤론의 집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낚시활동을 하고 있다.

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어르신의 욕구와 의견을 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게 느껴졌다. 강당은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행사가 자주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고향의 집이 홍보되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이어 오사카로 이동해 오사카YWCA가 운영하는 '샤론의 집'을 방문했다. 하나의 형용사로 표현하기 힘든 'YWCA 시설답다'는 느낌이었다. 샤론의 집은 우리나라 실버타운 같은 유료 노인시설인 케어하우스와 데이케어 서비스, 지역포괄지원센터, 헬퍼스테이션, 케어플랜센터, 아동관, 학동보육(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진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아동시설이었다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시설로 변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여전히 아동관으로 운영해 지역 내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1층에 내려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활동했다. 오사카YWCA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하고, 케어하우스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취미클럽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장을 개방하지 않아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는 모습은 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들으며 어르신을 존중받도록 돌보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의 요구까지 해결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을 느꼈다.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과 '지역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화두를 생각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도시샤대학교 앞에서 연수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휴먼북 콘서트 및 2018 여성위생용품 나눔퍼포먼스

강원지역 YWCA 회원들이 11월 20일(화) 강원도 고성군 DMZ박물관에서 열린 '평화휴먼북콘서트 및 2018 여성위생용품 나눔퍼포먼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우미강

동해YWCA 사무총장

YWCA강원협의회(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는 세계 유일 분단자치도인 강원도에서 올해 2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과 감동의 열기를 이어가고자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강원여성평화아카데미, 대안생리대를 북측 강원여성들에게 전달하는 '평화휴먼북콘서트 및 2018 여성위생용품 나눔퍼포먼스'로 통일 준비를 위한 평화의 걸음을 성큼 내디뎠다.

여성들이 평화의 물꼬를 트자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역사가 공존하는 분단자치도 강원도에서 펼쳐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으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남북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공동응원전 등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남북교류와 화해는 한반도에 통일의 문을 여는 기적의 올림픽이 되었다.

한국YWCA가 창립 90주년을 맞은 2012년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평화순례를 시작할 때 가슴깊이 전해오던 울림을 다시 한 번 느낀 순간이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 분단도 강원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은 강원여성들에게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특별평화자치도 선언'을 비롯해 강원도에서는 역점을 두고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역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당시 강원도지사 여성특별보좌관이었던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을 여성들이 해보자"면서 "강원지역 YWCA가 중심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평창올림픽 이후 이뤄졌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YWCA로 구성된 YWCA강원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화아카데미, 평화휴먼북콘서트와 대안생리대 나눔을 기획했다.

10월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을 강원지역 여성에게 확산하기 위한 '강원여성평화아카데미'를 강원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해 10개 지역(동해, 강릉, 속초, 원주, 춘천, 홍천, 태백, 삼척, 고성)에서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홍보출판위원장인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북한 아나운서 출신 정진화 강사의 강연을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북한 여



청소년들도 대안생리대 만들기 참여했다.

성의 일과 가족생활 문화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북측여성의 건강을 염려하는 강원여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8월부터는 5천개의 대안생리대(친환경생리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YWCA강원협의회를 중심으로 YWCA 이사와 회원, 청소년, 실무활동가 등 통일을 꿈꾸는 다양한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11월 20일(화)에는 '하나된 강원여성,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평화휴먼북콘서트 및 2018 여성위생용품 나눔퍼포먼스를 열었다. 북강원도와 남강원도가 맞닿은 강원도 고성군 DMZ박물관에 모인 여성 400여명은 통일의 주체로서 강원여성이 평화 씨앗을 뿌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아카펠라 그룹 MTM의 공연 '희망을 잇다'에 이어 탈북여성 두명이 휴먼북(사람책)이 되어 패널들과 이야기하는 평화휴먼북콘서트 '사람을 잇다', 북강원여성들에게 대안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포장해 전달하는 '평화를 잇다'로 진행됐다. 세계YWCA 부회장인 한미미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 사회를 맡은 '사람을 잇다'에는 허진 탈북 요리사와 엄에스터 탈북 청년활동가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참가자들의 소감 한마디!

주은영 강릉YWCA 간사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여성들이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강원여성이 하나되어 넘지 못할 것 같던 남북의 경계에 평화를 잇는 디딤돌이 된 것 같아 따뜻했다.
전경애 동해YWCA 이사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남과 북이 힘차게 이어질 것이다.
전상희 속초YWCA 간사 DMZ에서 가까운 북녘 땅을 바라보니 아픈 역사가 다시금 생각났다. 평화휴먼북콘서트를 통해 들은 북한여성의 삶, 탈북 후 겪은 어려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고군분투했을 그들의 삶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YWCA의 평화-통일운동, 나눔의 가치는 내 가슴을 뛰게 했다.



북측 강원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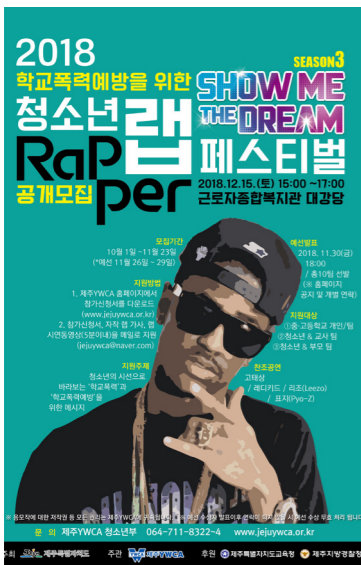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색동조각보'를 함께 두르며 여성들이 평화의 주체로 나서는 의미를 나눴다. 국제여성평화걷기, YWCA 여성평화순례 등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상징이 된 '색동조각보'는 한국YWCA연합회와 박영순 실행위원이 후원했다.

'하나된 강원여성, 평화를 잇다'라는 주제를 보며 모소 대나무를 떠올렸다. 처음 심은 뒤 4년까지는 해마다 작은 싹만 틔우고 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5년째가 되면 온 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죽순이 돋기 시작해 하루에 30cm 넘게 자란다고 한다. 그리고 6주 만에 15m 이상 성장해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모소 대나무는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발걸음과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의 오랜 세월을 지나며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일상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통일이란 선물이 봄날처럼 오고 있다. 긴 시간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그 맥을 잇는 실천을 지속해온 YWCA가 있기에 지금의 평화운동도 가능했다. 희망과 사람, 평화를 잇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북강원여성들에게 전달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주YWCA 청소년 랩페스티벌 'SHOW ME THE DREAM' 시즌3이 12월 15일(토)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수상자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안선영 제주YWCA 부회장
박슬기 제주YWCA 간사



2018 청소년 랩페스티벌 포스터

2016년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은 제주YWCA 청소년 랩페스티벌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직접 랩을 만들어 경연하는 랩페스티벌은 해마다 지원자가 늘어 제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고 있다. 청소년 랩 열풍을 일으킨 TV프로그램 <고등래퍼>의 탄생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는 26개팀이 지원해 10개팀이 본선에 올라 고충영 학생(오현고 3학년)이 대상을 받았다. 제1회 청소년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행사를 이끌고 있는 안선영 제주YWCA 부회장이 랩페스티벌 이야기를 들어본다.

'랩'으로 풀어낸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종종 학교를 '지옥'에 비유한다. 죽을까지만 상상하는 피해자들이 학교를 빠져 나와도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고통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 큰 보복이 돌아올까봐 부모 앞에서도 말을 삼킨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할 때다. 밖으로 터지지 못한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향하며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놓아버리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학교폭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차례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맡은 제주YWCA는 책임을 통감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자 매년 전문가 강사를 초빙했지만, 학교현장에서 기대한 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학생들이 일방적인 '수업의 연장선'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상처가 피해 학생의 마음 속에서 끓아 터지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청소년 랩페스티벌'은 그렇게 시작됐다. 흑인음악의 한 장르인 랩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흑인들이 박탈감과 분노를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 박자에 맞춘 가사로 승화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폭력의 돌파구

2016년 첫 번째 랩페스티벌에 21개팀이 도전했다.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랩은 승부수가 되었다. TV프로그램 <힙합의 민족>에 출연한 배우 문희경은 제1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제주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을 랩으로 담아내 놀랍다. 랩페스티벌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출연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대부분이었다. 1회 참가자들의 가사를 보면 학교폭력으로 무너진 일상을 대하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본인의 상처를 깊은 곳에서 꺼내 올리는 과정이었기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팠다. 몇몇 가해자도 출연했다. 그들은 "가사를 쓰며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회를 거듭할수록 변화가 보였다. 2회 본선에 진출한 12개팀 가사에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의

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제주YWCA는 메시지상을 만들고 심사기준을 음악성이 아닌 가사 전달력에 집중해 학교폭력을 전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올해 3회는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받은 고통과 상처가 가사에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위안, '어두운 현실에 하나 둘씩 빛을 비추겠다'는 다짐, '괴롭힘을 당했다고 내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지가 덧붙었다. 끄집어낸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을 멈추고 모두 함께 놀자'고 노래한 가사도 인상적이다. 친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따뜻하고 힘 있는 위로를 담았다. 주위에 "이것도 학교폭력이다"라고 알려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제주YWCA가 랩페스티벌을 기획한 의도다.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후원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회 랩페스티벌을 보고 아이돌 가수 블락비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케이블 채널 tvN 관계자는 유튜브로 랩페스티벌을 보고 <고등래퍼>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제주YWCA는 2019년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밴드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이제 어른들의 차례다. 교육청과 경찰청은 학생들이 진심을 다해 쓴 가사에 귀를 기울이며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에는 무한경쟁 교육체제, 변화된 시대에 맞는 학교질서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히 가해자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사후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학교폭력 피해사건이 일어나면 '반쪽' 분노하고 금세 잊는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가해자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계도할 수 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제주YWCA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성탄예배



2018 성탄예배가 12월 1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오래된 새길,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이홍정 목사의 설교 ‘사랑이 정의다’, 북한이탈주민 조남희, 박유진 국민대 학생의 북한 노래 ‘임진강’ 공연이 이어졌다. 한영수 회장이 성탄 축하 인사를 전했고, 백혜진 실행위원이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성탄의 시를 낭독했다. 이날 헌금은 북한YWCA 재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6-7쪽에)

2018 김필레리더십캠프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필레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18 김필레리더십캠프가 연동교회, 서대문형무소,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12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는 정신여중 학생 25명이,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는 정신여고 학생 24명이 참여했다. 옛 정신여학교 교사가 있는 연동교회 방문, 여성독립운동사 특강, 서대문형무소 탐방, 영화로 만나는 역사 속 여성리더십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YWCA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1만 8,690팩이 11월 21일(수) 중국과 북한 육로를 통해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분유



는 9-10월분으로 평안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는 격월마다 북측에 전달되고 있다.

핑크머니 사회복지사 연수



2018 핑크머니 금융교육 연수가 서울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11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열렸다. 사회복지종사자 63명이 참여해 청소년 금융복지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YWCA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핑크머니와 펍핀(Pub-FIN) 교육내용을 체험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재무관리 강연 표현예술치료 워크숍, 취약계층 금융복지 정책제안도 진행됐다.

핑크머니 금융·경제교육 강사 대회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가 12월 5일(수)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렸다. 새로운 콘텐츠와 교육

방식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정성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인증강사가 ‘노인세대 교육’을 주제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대학·청년Y팀(김수진·손지수)이 ‘청년세대 교육’을 주제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핑크머니와 핑크잡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기관 시상도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34쪽에)

소비자의 날 기념식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 12월 3일(월)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YWCA를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인사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 유공자로 곽수현 목포YWCA 국장이 대통령상을, 이규숙 안양YWCA 부장



신간 안내

어른의 식탁

한국 가정식 대가로 유명한 요리연구가이자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이 중장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재료 정보와 다채로운 요리를 담은 <어른의 식탁>을 펴냈다. 각종 신체변화가 나타나는 중장년기에 도움이 될 81가지 건강요리 생활조리법을 소개했다.

다봉 / 15,000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애, 국은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애,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희,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민,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희,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목, 박은경,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복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목, 안은화, 안정희, 양정신,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향,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영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은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걸, 이종임, 이주영, 이찬희, 이찬진, 이혜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항욱,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진,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진인식, 천유란, 최수신나, 최자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810,000
개인기부	오경선	36,870
회원YWCA	강릉YWCA, 여수YWCA, 울산YWCA	2,407,400
협력교회	기본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한양대여성교회	2,36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니다스(명동지점), 르뱅(명동성당지점), 에세레(명동지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지점), 알파문구(명동성당지점)	141,390
합계		6,755,66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수원YWCA	500,000
합계		500,000

경기

고양YWCA

문정은 간사

키다리학교 수료식



청소년대상 주말대안학교인 고양YWCA 키다리학교는 11월 10일(토) 수료식을 끝으로 올해 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가 살릴 고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4월 시작한 이번 키다리학교는 14회에 걸쳐 환경교육으로 진행됐다. Y-틴 회원 21명이 참여해 고양시 환경실태조사, 기후변화와 대응, 생활 속 환경호르몬,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등을 주제로 강의, 체험, 탐방을 하며 환경감수성을 높였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YWCA·YMCA 공동기도회



11월 22일(목) 남양주YWCA 주관으로 남양주YWCA·YMCA 공동기도회를 열었다. 전재국 목사(남양주 청소년과 놀이 문화연구소 소장)가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이라는 주제로 기성세대가 청년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과제를 설교했다.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선언, 청년을 위한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발효음식 체험

부천YWCA는 11월 27일(화) 우리 농산물에 관심있는 여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YWCA 교육장에서 발효음식 체험을 진행했다. 안전한 먹거리,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 등



을 강의하고, 경기사이버장터에서 구매한 재료로 누룩고추장, 견과류쌈장을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수원YWCA는 12월 5일(수) 김장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300가정에 전달하는 사랑나눔 김장담그기를 진행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수도권건설사업단, 코레일유통 경기본부의 지원으로 김장 3,000kg을 전달한 이번 나눔에는 4개 기관과 수원YWCA 회원 등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다문화월드페스티벌



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월 3일(토) 센터 앞에서 다문화월드페스티벌을 열었다. 다문화가족과 주민 800여명이 참여해 세계문화 체험, 먹거리장터, 전통의상 열쇠고리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화분 만들기, 알뜰장터를 즐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성분 측정검

사, 단원경찰서의 어린이 경찰복 입어보기, 안산소방서의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지역기관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 간담회



안양YWCA는 11월 30일(금) 안양시청 일자리교육장에서 2018년 안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모니터링 분석결과, 사업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토론과 시민모니터단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최병일·이은희 의원과 공무원, 여성단체 활동가, YWCA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YWCA·YMCA 공동기도회



의정부YWCA 주관으로 11월 29일(목) 의정부YWCA·YMCA 공동기도회를 열었다.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 주제로 참석자들이 청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벽에 붙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의정부YWCA 직원총장단 특송, 서재운 의정부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평화의 띠잇기, YWCA·YMCA 청년대표들의 청년 평화기도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일일찻집

하남YWCA는 12월 10일(월) 하남시청 앞 설빙에서 임원, 이사,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일찻집을 열었다.



나눔, 돌봄, 섬김의 정신 실천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여성일자리 창출기금을 마련하고자 열린 일일찻집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도 모았다. 지역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후원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사랑의 큰장날



거제YWCA는 11월 10일(토) 회원과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거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큰 장날'을 열었다. 산지 과일, 견어물, 잡곡류, 생활잡화, EM제품 등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자원순환 가치를 되새기는 '청소년 아나바다 벼룩시장'도 진행했다. 이번 수익금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취업스타트 생생데이



김해YWCA가 운영하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회원YWCA 소식

28일(수) 취업준비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취업스타트'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타트 생생데이'를 열었다. 취업준비생과 취업자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40명이 참여했다. 우울증 척도와 자살 인식도 조사,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케익만들기 등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맞춤형 부부교육



대구YWCA는 '소통하는 부부, 공감하는 부부'를 위해 예비·신혼·중년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진행했다. 9월에는 신혼부부 교육, 10월에는 예비부부 교육, 11월에는 중년부부를 위한 힐링캠프를 열어 부부간 바람직한 소통법으로 갈등 해결법을 찾고 결혼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여 부부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창립 72주년 '장미여관 부산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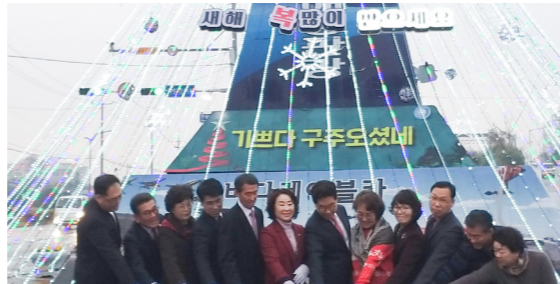


부산YWCA는 11월 8일(목) 부산시민회관에서 창립 72주년 '장미여관 부산콘서트'를 열었다. 공연 직전 갑자기 쏟아진 비바람에도 시민들로 만석을 이뤘으며 연령, 세대 관계없이 모두가 뛰어놀며 밴드공연 무대를 한껏 즐겼다. 부산YWCA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여성단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성탄트리 점등식



사천YWCA는 12월 3일(월) 죽림삼거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 사천시와 사천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교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탄절을 축하하고 희망찬 2019년을 맞길 기원했다. 성탄트리 불빛이 사천 시민 모두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추기를 소망하고 지역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양산YWCA는 등굣길 아침밥을 거르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 먹고 다니기와 올바른 식습관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금)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 봉사단과 함께 양산남부고등학교에서 1,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쌀떡, 음료수, 꿀 등을 나눠주었다. '일주일에 아침밥을 몇 번 먹나요?' 스티커붙이기 캠페인도 벌였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소비자의 날 캠페인

울산YWCA는 12월 3일(월) 소비자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소비자권리 의식을 높이고, 주체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다음날인 12월 4일(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2회 울산 소



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은경 울산YWCA 사무총장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Eco숲 콘서트



진주YWCA와 4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1월 13일(화) 월아산 우드랜드에서 진주혁신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협약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첫 번째 협업으로 선정한 진주혁신네트워크는 이날 진주YWCA가 주관한 아동체험형 학습활동 '도담도담 어린이와 자연이야기 Eco숲 콘서트'를 같은 장소에서 열었다.

진해YWCA

김자영 간사

찾아가는 리폼교실



진해YWCA는 11월 26일(월) 정다운 장애인센터를 찾아 '찾아가는 리폼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자투리 천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개성 있는 나만의 멋진 액자를 만드는 즐거운 수업이었다. 장애인들의 밝은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여운을 남겼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누비자' 탈핵캠페인



매달 넷째주 수요일마다 탈핵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창원YWCA는 11월 22일(목) 탈핵경남시민연대와 함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타고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창원시청, 창원공설운동장, 상남도서관까지 '누비자'를 타면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탈핵과 친환경 교통수단을 동시에 홍보했다. 동아리 '누비자'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이용으로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감성콘서트 '가을! 추억속으로'



통영YWCA는 11월 13일(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감성콘서트 '가을! 추억속으로'를 열었다. 가수 남궁옥분과 박상민이 출연해 2시간의 열창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지역단체장과 시민 1,300여명이 참석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예향 통영의 위상을 높였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교복나눔장터

강릉YWCA는 12월 8일(토) 교복나눔장터를 열었다. 교복을 기증한 학생에게는 햄버거 교환권과 간식, 기념사진 포토존을 제공했다. 지역 청소년들이 기증한 50벌의 교복은 '아띠'를 통해 1천원부터 5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2007년 지역에서 처음 교복나눔장터를 개소한 강릉YWCA는 기증이 적어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교복나눔매장 '아띠'를 열고 교복물림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동해YWCA

허순희 간사

민들레밥상 어르신과 함께한 성탄예배



동해YWCA는 12월 17일(월) 평생회원들과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상을 찾는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열었다. 평생회원들은 이날 민들레밥상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평생회원들과 어르신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



서울YWCA는 11월 27일(화)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드러냄, 살림의 공동체를 꿈꾸며'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한혜영 여성참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홍보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장, 이은혜 뉴

스앤조이 기자, 도라희년 믿는페미 활동가, 최유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가 참석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원주YWCA

진정희 간사

한중문화교류 음악회



원주YWCA는 11월 2일(금) 원주백운아트홀에서 중국 장춘 벨라합창단과 함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천사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중문화교류 음악회를 열었다. 원주YWCA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이찬구 지휘자가 이끄는 원주YWCA 드림오케스트라와 어린이합창단의 공연, 벨라합창단의 노래에 원주콘서트콰이어와 장애인부모연대도 함께했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사랑의 연탄나눔



인천YWCA 청소년, 청년 회원들이 11월 17일(토) 동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독거어르신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펼쳤다. Y-틴과 대학·청년Y 회원들이 마련한 후원금으로 독거어르신 네 가정에 연탄과 쌀을 전달하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95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창립 32주년 기념예배

속초YWCA는 12월 14일(화) 강당에서 창립 32주년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이리자 회장의 인도와 실무활동가들이



준비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특별찬송, 이시정 은혜의 교회 목사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설교로 속초YWCA 32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역할을 강조했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YWCA·YMCA 공동기도회



11월 27일(화) 춘천YWCA 주관으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YWCA·YMCA 공동기도회를 열었다.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동기도회는 YWCA와 YMCA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협력을 강조하고,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제2차 이사·위원 연수

광주YWCA는 11월 31일(화) 이사, 위원,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상범 성서유니온선교회 목사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한 영성훈련에서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생각해보며 정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박은실 한국YWCA연합회 정책기획국장이 진행한 YWCA 정체성 교육에서는 초심을 회복하고 목

2018년도 제2차 이사·위원연수회



적에 충실한 YWCA가 되길 다짐했다.

남원YWCA

장신화 간사

출산과 바른 먹거리 체험전



남원YWCA와 아이낳기좋은세상남원시운동본부는 11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다양한 모형을 활용해 출산과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배우는 체험전을 진행했다. 남원YWCA에 체험관을 설치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시청각 도구로 우리 몸 알아보기, 태아모형과 임신체험, 자궁방체험, 출산체험,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바로알기 등을 교육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11월 14일(수) 목포YWCA 강당에서 전남YWCA협의회(광양·목포·순천·여수YWCA) 회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YWCA 소식

데 여성친화도시 워크숍을 열었다. 김밀양 두드림심리상담교육센터장이 '여성친화도시 우리의 과제'를 강의하고, 조별토론을 벌였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광양, 순천, 여수지역 YWCA는 젠더관점 정책을 적극 반영할 의지를 밝혔고, 목포의 경우 YWCA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YWCA·YMCA 공동기도회



세계YWCA와 YMCA는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기념해 이날을 기점으로 1주일간을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YWCA·YMCA 연합예배와 공동기도를 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29일(목) 순천YMCA 주관으로 순천YWCA·YMCA가 함께 '선한 세상을 위한 청년운동'을 주제로 기도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제주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최종보고회



서귀포YWCA는 12월 4일(화) 강당에서 서포터즈단과 시민 50여명이 참여해 2018년 제주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으로 진행된 '여성친화마을연계사업 : 안전마을 주민과 통하다'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방안, 안전 특강, 서포터즈 활동보고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제주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설계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된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성인문해 시화전과 수료식



여수YWCA는 12월 5일(수) 강당에서 성인문해교실 시화전과 수료식을 열었다. 믿음·사랑·소망만 어르신들이 한해 동안 갖고 닦은 한글 솜씨를 글과 그림으로 뽑낸 전시회는 자신감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 수료생들은 글자를 읽고 쓸 뿐 아니라 스스로 은행을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복을 준비해 어르신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익산YWCA 흥진 간사

수능생 성품리더십 교육



익산YWCA는 11월 17일(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춘들을 위한 성품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청소년연매나눔공동체 최광동 센터장은 "성품리더십이란 나와 다른 사람, 세상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주는 경청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라며 리더십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시민강좌 '청춘공감, 청년을 그리다'

전주YWCA는 11월 22일(목) 회관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세 번째 시민강좌로 '청춘공감, 청년을 그리다: 청청데이'를 열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YWCA 청년활동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강좌는 공감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사업가, 취업준비생, 대학생, 학교박청소년 등 5명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이웃사랑바자회



제주YWCA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환경 개선 모금을 위해 제주MBC와 제주사랑의열매가 11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한 2018 이웃사랑바자회에 참여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들과 여성의 쉼터 입·퇴소자들이 만든 생활소품,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고, 이사들은 즉석에서 김밥, 메밀전병, 팔죽 등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편지로 쓰는 한글사랑대회



논산YWCA는 11월 29일(목) 강당에서 편지로 쓰는 한글 사랑대회를 열었다. 4년째 열리는 편지쓰기 대회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고국 가족에게 편지를 씬으로써 향수를 달래고 한글을 친숙하게 느끼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YWCA 다문화 한글 배움터와 생활한국어 교육생을 대상으로 2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의 민속공연과 장기자랑도 선보였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평생회원모임



대전YWCA는 평생회원 31명을 초청해 11월 28일(수) 대강당에서 평생회원 모임을 진행했다. 유덕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오순숙 명예이사의 기도, 김정민 회장의 인사말, 대전YWCA 70주년 기념영상 시청, 한국YWCA 중점운동과 대전YWCA 활동소개로 이뤄졌다. 평생회원들은 YWCA 발전에 감동을, YWCA는 지역운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준 평생회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70주년 기념식·음악회



조치원YWCA로 시작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세종YWCA가 11월 20일(화) 세종시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과 음악회를 열었다. YWCA 전·현직 임원, 회원을 비롯해 이

회원YWCA 소식

춘희 세종시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 지역인사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음악회는 무형문화재인 임영이 증경회장의 판소리, 성남고 뮤지컬학과 학생들의 공연, 가수 린의 무대로 꾸며졌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씽크머니 금융교육



제천YWCA는 11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의림여중 3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월)에는 하소아동 복지관 중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씽크머니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체험활동과 그룹토론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쉬우면서도 흥미 있는 경제교육이 되었다. 금융경제교육 혜택이 적은 도서산간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씽크머니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천안YWCA

강규희 부장

후원음악회 '영화 같은 저녁'



천안YWCA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후원음악회 '영화 같은 저녁'을 11월 29일(목)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에서 열었다. 영화 주제를 클래식으로 선보인 이번 음악회에서 마련한 기금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장학금과 진로지원 등에 쓰인다. 지난해 '지역사회 청년과 함

께하는 드림콘서트' 모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교복구입, 실업청년 면접용 정장구입,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등을 지원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사랑의 김장나눔



매년 김장철마다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나눔을 펼치고 있는 충주YWCA는 올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수자원공사가 후원한 김장김치를 독거어르신 열다섯 가정에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올해에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까지 나눴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청주여성영화제



청주YWCA는 11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롯데시네마 청주점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주제로 충북여성문화제 청주여성영화제를 열었다. '쇼팀12'을 비롯한 6편의 여성영화를 상영하고, 영상제 공모전 입선작 상영과 시상식도 진행했다. 지역여성들이 영화를 통해 여성 문화와 삶을 이야기할 기회를 마련하고, 올바른 성인지 문화를 정립하고자 2013년 재개된 충북여성문화제는 청주YWCA가 1999년부터 주관한 청주여성영화제로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보은, 충주, 제천영화제로 확대했다.

2018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YWCA 회원들의 영원한 고향 '버들캠핑장'		1·2	
70년대 청년문화의 산실 '청개구리'		3	
소비자운동과 서울YWCA 정광모		4	
뉴욕 한인들의 든든한 안식처 퀸즈YWCA		5	
위장결혼식 사건과 서울YWCA 강당	편집실	6	1쪽
민주화운동과 광주YWCA 조아라 선생		7·8	
정오기도로 시작한 평화·통일운동		9	
쓰레기증량제운동과 환경운동		10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운동		11	
바른살 실천대회와 의식개혁운동		12	

■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신임회장 인사말 '경하히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한영수	1·2	
미투운동과 YWCA 100년	원영희	3	
법상과 생명	이종임	4	
문재인 정부 1년, '성평등'은 제자리	백혜진	5	
곧 평양에서 만납시다	한미미	6	4쪽
성소수자와 이방인, 예수님이라면	조은영	7·8	
4차 산업혁명 시대 'YWCA'를 생각하다	이영희	9	
색동조각보, 평화를 잇다	박영순	10	
여자라서 죽는 나라	김은경	11	
YWCA 지역여성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은영	12	

■ 말씀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소원	고명진	1·2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	백소영	3	
'하나님 선교'에 재헌신하다	박보경	4	
히브리인의 '미투'와 여호와의 '위드유'	백소영	5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박보경	6	5쪽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박찬석	7·8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김효숙	9	
사람을 찾습니다	김예식	10	
결	김신애	11	
사랑이 정의다	이홍정	12	

■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2018년도 정기총회 현장	편집실	1·2	6쪽
2018-2019 주요사업	편집실	1·2	8쪽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편집실	1·2	10쪽
탈핵, 왜 에너지전환인가	김혜정	1·2	14쪽
성평등운동 지금은 '젠더다'	이주영	1·2	16쪽
백래시 리부트, 그리고 #MeToo	손희정	3	6쪽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편집실	3	8쪽
회원YWCA 미투운동 지지 캠페인	편집실	3	10쪽
'성폭력' 올바르게 알자	편집실	3	12쪽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운동의 방향	김은경	4	6쪽
교회는 미투운동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김애희	4	8쪽
성평등없는 개헌안 국민주권도 민주주의도 없다	김은주	4	10쪽
미투운동과 언론보도 : 2차 피해, 언론의 성찰이 필요하다	황경희	4	12쪽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신미희	5	6쪽
남북정상회담과 여성 대표성	김영주	5	8쪽
한반도 평화는 여성의 힘으로	장미란	5	10쪽
오월Y사민포럼 '오월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신미희	5	12쪽
여성평화건강기 현장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편집실	6	6쪽
여성평화건강기 화보 '여성 없이 평화 없다'	편집실	6	8쪽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백보람	6	10쪽
10대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권우영	7·8	6쪽
1020 탈코셋 운동 :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	최산화	7·8	8쪽
페미니스트 해고라고? 페미니즘이 밥먹여준다	김예지	7·8	10쪽
YWCA는 왜 지역여성운동을 하는가	신미희	9	6쪽
청주YWCA 여성주의로 지역운동을 하다	이혜정	9	8쪽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현장 '시대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나아가자'	문윤희	10	6쪽
사진으로 보는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편집실	10	8쪽
지리산에 모인한민족여성들 2022년 백두산에 함께 오르자	신미희	10	10쪽
'달빛동행 참가기' 나는 왜 한라산, 지리산을 올랐는가	박현미	10	12쪽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해법은 '진짜뉴스다'	정철운	11	6쪽
가짜뉴스가 가짜기독교 만든다	김민수	11	8쪽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는 거짓 프레임	김은주	11	10쪽
2018 성탄예배 '모든 것을 화해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편집실	12	6쪽
사진으로 돌아본 2018	편집실	12	8쪽
2018 한국YWCA 10대뉴스	편집실	12	12쪽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2018년은 페미니즘 리부팅이 될 것인가	이하나	1·2	18쪽
교회 여성과 페미니즘 '밈'은 페미들이 모인다	최유리	1·2	20쪽
'홍겹수다' 탈핵한마당, 제200차 캠페인	편집실	3	18쪽
회원YWCA 탈핵 캠페인 현장	편집실	3	20쪽
BUND 특강 '핵에너지국 독일은 어떻게 탈핵국가로 되었는가'	김민주	3	22쪽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탈핵을 말하다'	문윤희	3	24쪽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 대상 과배회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편집실	4	14쪽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소감	과배회 서지현	4	16쪽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YWCA 탈핵·성평등 정책의제	편집실	4	18쪽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 Y-틴 '청소년 참정권운동'	서민정	4	20쪽
지방선거와 여성 '미투 열풍, 선거에 여성은 없다'	진주원	5	16쪽
지방선거와 여성 : YWCA 유권자운동 현장	편집실	5	18쪽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선거	진주원	6	12쪽
여성할당제 개혁해야 '이재정' 깬다	마정윤	6	14쪽
대학 청년Y 청년유권자행동 SNS 릴레이캠페인	김수진	6	16쪽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 '미투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	김민주	7·8	12쪽
논산YWCA 찾아가는 어린이 성평등교육 Y뽕뽕	조은숙	7·8	14쪽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동부지역위원회	원필숙	7·8	16쪽
대학 청년Y 전국회원대회 '청년을 숨쉬게 하다 청년 CPR캠프'	손지민	9	10쪽
대학 청년담당 활동가 해외연수 '잠시 멈추니 길이 보였다'	나희진	9	12쪽
아시아태평양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 '하나된 일곱 국가의 마음'	양동연	9	14쪽
제22회 YWCA가 밝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문윤희	11	12쪽
<미스터 선샤인>은 왜 상을 받지 못했는가	김예지	11	16쪽
'미투운동은 이제 출발선을 넘었다'	이하나	12	18쪽
성폭력 해결 없이 한국교회 회망도 없다	김민주	12	20쪽

초점, 이슈

제목	필자	월	쪽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패스, 밥상안전 대책 세워라	안재훈	3	16쪽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담회 : 페이미투, 청년부터 설득하라	문윤희	6	18쪽
'동일임금의 날' YWCA 전국캠페인 확보	편집실	6	20쪽
낙태죄 위헌소원 '전면금지, 전면허용' 넘은 해법 나올까	박현정	6	22쪽
생활 속 사냥 '음이온'의 배신	김혜정	6	24쪽
젠더와 종교 예수는 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최지영	7·8	20쪽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지리산 평화순례	백보람	7·8	22쪽

청소년보호 국제세미나 '영국, 한번의 그루밍도 처벌한다'	송다운	9	10쪽
스웨덴은 왜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가	송다운	9	12쪽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국회 법률개정부터 나서라	천유란	9	14쪽
한국 교회는 어쩌다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가	구권호	10	16쪽
교회는 왜 '그루밍 성폭력'에 속수무책인가	이은혜	11	20쪽
Y-틴 청소년성평등 인식조사 '성차별 86.9%'	천유란	12	22쪽
한장에서 겪은 청소년성평등 교육	노하연	12	24쪽

칼럼, 강연

제목	필자	월	쪽
기독교성들은 여성혐오사대정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편집실	1·2	22쪽
31운동과 여성 '그 많던 만세운동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윤숙	1·2	26쪽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 '회복적 평화가 필요하다'	백보람	4	28쪽
'미투(MeToo)와 성평등운동'	편집실	5	14쪽
YWCA 지속가능포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서형원	6	26쪽
젠더와 종교 예수는 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최지영	7·8	20쪽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평화, 용서가 먼저다'	서형원	7·8	24쪽
YWCA 지속가능포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과 교육'	손지수	9	24쪽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 '대화가 평화를 만든다'	김민주	9	28쪽
우리는 왜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하는가	손지민	10	14쪽
해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문과 한국 교회의 역할	김상은	10	18쪽
YWCA 지속가능포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차민규	11	18쪽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Here I am'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운동	천유란	1·2	24쪽
대학 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	편집실	1·2	30쪽
Y-틴 전국협의회 총회	문윤희	1·2	32쪽
김필레리더십캠프 참가기 '정신어고와 김필레'	편집실	1·2	34쪽
사무총장 해외연수 : 독일, 오스트리아 에너지전환	박선	3	26쪽
대구YWCA 95주년 기념식	손지수	4	24쪽
YWCA 첫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 열다	이지윤	4	30쪽
YWCA는 지금, 왜 성평등운동을 하는가	박동순	5	22쪽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문윤희	5	24쪽
탈핵새앗강사 아카데미 '에너지 전환'	서형원	5	26쪽
라돈침대 사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정희	5	30쪽
YWCA·YMCA 청년들 지방선거에 목소리 낸다	이보람	5	38쪽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북부·서부지역위원회	노인자 인영희	6	28쪽
광주YWCA 조아라 선생 15주기 추모식	신미희	7·8	28쪽
가사근로자법 연구 유럽 현장연수	장옥현	7·8	30쪽

YWCA 어린이집 원장 복유림연수	정순영	7·8	32쪽
YWCA 경기지역 회원대회	문윤희	7·8	34쪽
YWCA 중부지역 회원대회	문윤희	9	26쪽
Y-틴 전국회원대회 '역사 속 진실에 답하다'	육예진	9	30쪽
Y-틴 일본군 '위안부' 역사알리기 8·15전국캠페인	이소연	9	32쪽
한국YWCA 'YANA콘서트' 동행	김민주	10	24쪽
YWCA 북부지역 회원대회	신미희	10	26쪽
YWCA 동부지역 회원대회	신미희	10	28쪽
강릉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박금자	10	30쪽
YWCA 전국증경회장 모임	김예은	10	36쪽
YWCA 서부지역 회원대회	곽수현	11	28쪽
사천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조준복	11	30쪽
쌍곡머니 청소년 세계지갑여행	이지윤	11	32쪽
북·중 접경지역 평화역사 연수	백보람	11	34쪽
세종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손지수	12	28쪽
성남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복순	12	30쪽
쌍곡머니 드림십콘서트 '꿈을 찾아 떠나볼까'	서형원	12	32쪽
쌍곡머니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사 경진대회	홍수진	12	34쪽
YWCA 은하의집 산진노인복지 해외연수	윤수정	12	36쪽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제목	필자	월	쪽
목포YWCA 돌봄회원 공간 '플랫폼'	신미희 손지수	1·2	36쪽
강릉YWCA와 평화올림픽	김희숙 고문희	3	30쪽
인찬YWCA 16번의 나눔장터 이야기	오수진	3	32쪽
경주YWCA '행복한 어르신학교'	봉혜영	4	32쪽
천안YWCA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강규희	4	34쪽
속초YWCA '평화기'도회모임 평화기행	김미정	5	30쪽
의정부YWCA 남북한 평화강사 양성교육 '미스피스'	김지혜	5	32쪽
세종YWCA 등불아간학교	김영옥	6	30쪽
고양·의정부·남양주YWCA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박선영	6	32쪽
순천YWCA Y-틴 농촌체험 봉사활동	김원지	9	34쪽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천원의 장학금'	강하자	9	36쪽
수원YWCA 금융생활체험교실 '편한' 2호 개실	손지민	10	32쪽
울산YWCA 연합 상임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가다	권한별	11	36쪽
YWCA강원협의회 평화기행 '강원여성, 평화를 잇다'	우미강	12	38쪽
제주YWCA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캠페인' 열다	박솔기	12	40쪽

인터뷰, 대담·좌담

제목	필자	월	쪽
청년토크 '수도권 풀림' 현상	대학·청년Y	1·2	28쪽

청년토크 '일상 속 성폭력, 우리도 고발한다'	대학·청년Y	3	14쪽
청년토크 : 내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대학·청년Y	5	18쪽
인터뷰 : 창립 40주년 맞은 퀸즈YWCA 최영아 회장	편집실	5	34쪽
청년좌담 : 신지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등의 가치를 만들고 싶다'	편집실	7·8	17쪽
인터뷰 : 영화 <허스토리> 실화 주인공 김문숙 회장	김예은 김솔지	7·8	36쪽
좌담 : 지리산에 모인 한민족 여성들 '2022년 백두산에 함께 오르자'	신미희	10	10쪽
청년토크 '우리도 어딘가에선 난민이다'	대학·청년Y	10	22쪽
청년토크 '교회는 왜 성소수자를 혐오할까'	대학·청년Y	11	22쪽
인터뷰 : 청년토크 '주인공'들을 만나다	김민주	12	26쪽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뮤지컬 <레드북>	최형미	1·2	38쪽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	이윤숙	3	34쪽
하정완의 레퀴엠 <먼지가 일어나리나>	이은혜	4	36쪽
만화 <머느라기>	김예리	5	36쪽
책 <권력과 교회>	양희송	6	34쪽
사진전 <사는 거 다 똑같디요>	박미경	7·8	38쪽
책 <그녀 이름은>	김신애	9	38쪽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윤숙	10	34쪽
안전한 교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재	김은선	11	38쪽

국제

제목	필자	월	쪽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우리예겐 이바소가 필요하다'	김예지	3	28쪽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보트에 올라보니'	김수진	4	22쪽
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디어 속 성차별을 없애라	송소연	4	26쪽
한반도 분단 70년, 팔레스타인 '나크바' 70년	한미미	5	20쪽
한국·폴란드·아르메니아 YWCA 자매들이 만났다	김상은	7·8	26쪽
대학 청년담당 활동가 해외연수 '잠시 멈추니 안 보이던 길이 보였다'	나희진	9	12쪽
아시아태평양 청년국제교류프로그램 '하나된 일곱 국가의 마음'	양동연	9	14쪽
청소년이 만난 '히로시마 평화순례'	이태인	9	22쪽
글로벌이슈포럼 '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은영	10	20쪽
세계YWCA·YMCA 지도주간 '젊은이야 일어나리'	김은영	11	24쪽
YWCA·YMCA 연합예배 청년선언 '우리가 만드는 성평등 세상, 한반도 평화'	임희진 차민규	11	26쪽